

	<b>보도 자료</b>	<b>배 포 일</b>	2020년 1월 8일 (수)	<b>매 수</b>	총 2매
		<b>보도일시</b>	1월 9일 (목)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담 당</b>	강원연구원 이원학 기획홍보팀장 Tel 033)250-1361, FAX 033)250-1329, E-mail whlee@rig.re.kr			

<b>제 목</b>	<h2 style="margin: 0;">강원연구원 웹뉴스 발간</h2> <h3 style="margin: 0;">- 한 눈에 보는 12월 강원이슈 -</h3>
------------	---

강원연구원(원장 육동한)은 1월 8일 (수) 웹뉴스 ‘한눈에 보는 12월 강원 이슈’를 발간하였다. 12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도정 관련 기사 제목을 분석하여 강원도와 관련 주요하게 다뤄진 이슈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발간된 웹뉴스에 의하면 지난 한 달간 ‘레고랜드’ 관련 언론보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 속에 조성사업 정상화에 돌입한 레고랜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레고랜드는 향후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이자 복합리조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수소도시’가 화제성이 높은 이슈로 분석되었다.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서 삼척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소 R&D 특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수소에너지 산업을 원전 대체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갈으로써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작년 4월 고성군과 속초시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산불보상’ 뉴스가 많았다. 한전이 손해사정 금액의 60%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가리왕산’의 곤돌라 존치를 놓고 강원도·정선군과 산림청의 견해 차이가 지속됨에 따라 지면을 장식하는 주요이슈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강원도의 썩크탱크로서 품질높은 연구성과 창출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정책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연구원의 웹뉴스에 대한 의견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ig.re.kr>)로 제공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강원연구원은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정보 제공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인터넷 정기간행물 ‘강원연구원 웹뉴스’를 새롭게 개편 발간하였다. 강원연구원 웹뉴스는 매일 둘째주·넷째주 수요일에 발간되는 웹 콘텐츠로 강원도 관련 기관 공무원과 도민 약 1만2천명에게 발송되고 있다. 강원연구원 웹뉴스는 정책메모·연구보고서 소개·알림마당·그림으로 보는 강원도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눈에 보는 강원이슈’와 ‘RIG 脈’이 격주로 소개되고 있다.

[별첨] 한 눈에 보는 12월 강원이슈(제203회)

강원이슈

## 한 눈에 보는 강원 이슈

2019년 12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강원도 관련 기사의 제목을 분석하여 시각화 Word Cloud는 단어를 다양한 모양으로 그래픽화한 것이다. 빈도가 높고 핵심어 일수록 큰 글씨로 중심부에 표현되어, 대상의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각화 분석 도구이다.

레고랜드	수소도시	산불보상	가리왕산
<p>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 현재 까지 공정률은 5% 정도이며, 2021년 여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는 놀이 공원 뿐만 아니라 레고 호텔과 워터파크 등을 추가 투자해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기고, 휴양할 수 있는 4계절 체류형 복합리조트로 조성할 계획.</p>	<p>2019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서 삼척시가 전국 유일하게 수소 R&amp;D 특화도시로 선정되었음. 앞으로 수소에너지 산업을 원전 대체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감으로써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p>	<p>작년 4월 고성군과 속초시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산불보상’과 관련한 뉴스가 많았음. 한전은 한국 손해사정 사회가 정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지급하도록 결정. 피해 보상액은 대략 950-96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임.</p>	<p>가리왕산 경기장은 폐막 후 곤돌라 존치냐, 산림 전면 복원이냐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음. 산림청은 완전 복원을 주장하는 반면 강원도와 정선군은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임. 국무총리실 주재로 6개월 넘게 협의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p>